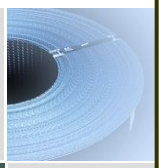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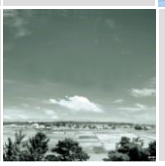
2008. 12. 23

POSRI CEO REPORT

불황기의 철강기업 대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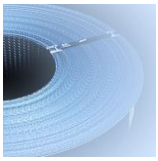


철강연구센터

박현성

POSRI 포스코경영연구소

Executive Summary



〈 불황기의 철강기업 대책 동향 〉

❑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아 미래 전망도 매우 불투명

- 워렌 버핏 등 주요 인사들도 향후 세계경제 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잇달아 경고

❑ 자동차와 조선 등 철강수요산업도 생산활동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판매부진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급속히 전이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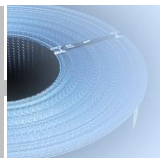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세계 철강수요도 감소세로 반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16.5%** 증가에서 **7**월에 동 **4.9%**로 급락한 이후, **8**월부터 감소세로 반전, **10**월 현재 마이너스 **14.3%**로 급속히 침체

- 국제 열연수출가격은 금년 8월 대비 40%나 급락하였으며, 특히 중국 내수 가격은 55%나 급락

❑ 주요 철강사는 최근의 유례없는 불황에 대응하여, 수익악화를 방지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신속히 감산을 단행하는 등 경기적 대응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

- 생산대응: 신속한 감산체제로의 전환 및 탄력적 생산체제
- 판매대응: 리스크 관리 및 고객과의 관계 강화 등 비가격적인 대응 강화
- 원가절감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

❑ 결국 불황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기업 명운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며, 불황기를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은 불황기 이후 주도기업으로 성장 가능



목 차

Ⅰ. 세계경제 비관론 확산 ····· 1

Ⅱ. 철강산업 침체국면 진입 ····· 2

1. 철강수요산업 생산활동 부진 심화 ····· 2
2. 철강경기 급락세 ····· 3

Ⅲ. 불황기의 철강기업 대책 동향 ····· 4

1. 생산 대응: 신속한 감산체제로의 전환 ····· 4
2. 판매 대응: 리스크 관리 및 비가격적 대응 강화 ····· 6
3. 원가절감 등 구조적 대응 ····· 7

Ⅳ. 시사점 ····· 8

Ⅰ. 세계경제 비관론 확산

❑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아 미래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

○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선진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2년간 극도의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

❑ 워렌 버핏 등 주요 인사들도 향후 세계경제 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잇달아 경고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구제금융안이 신용경색 완화에는 도움되겠지만 모든 문제를 풀어주지 못할 듯. 미국이 경기후퇴 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

오릿 가디쉬, 베인 & 컴퍼니 회장
" 美 금융위기는 거대한 폭풍우의 서막(序幕)에 불과, 세계경제는 Perfect Storm에 직면한 상황으로 점차 더 힘들어질 것"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와세다대 교수
" 끔찍한 세계 동시 불황이 시작되었다. 실물경제도 3년~4년은 어두운 시절을 보낼 것, 전후 최악의 세계 동시 불황이 다가올 것"

Ⅱ. 철강산업, 본격 침체국면 진입

1. 철강수요산업, 생산활동 부진 심화

❑ 자동차: 초유의 복합 불황으로 생산감소 심화

○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판매부진이 중국 등 개도국으로 급속히 확산

○ 특히 재고 급증 속에 각국 자동차 업계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감산 및 생산중단을 잇달아 단행

<표 1> 자동차 생산 증감률 전망 (%)

	2007	2008	2009
선 진 국 (미국)	1.7 (-6.5)	-5.2 (-15.8)	-6.5 (-11.5)
개 도 국 (중국)	11.2 (21.9)	0.5 (6.5)	-2.0 (4.0)
세계 전체	5.1	-3.0	-4.7

자료: CSM Global 및 POSRI(2008.11)

○ 한국도 내수침체가 심화되어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약 5%~6%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감소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조선: 발주 급감 속에 기 발주 물량 취소 사태로 분위기 급랭

○ 2008년 발주량은 전년의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2011년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한편 금년 10월 이후 발주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현재 벌크선 300척 발주가 취소. 이는 수주잔량 760척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수준이며, 향후 발주 취소사태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 증대

○ 결국, 이러한 발주 감소 및 취소 사태는 시차를 두고 건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2011년 이후부터는 세계 건조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

2. 철강경기 급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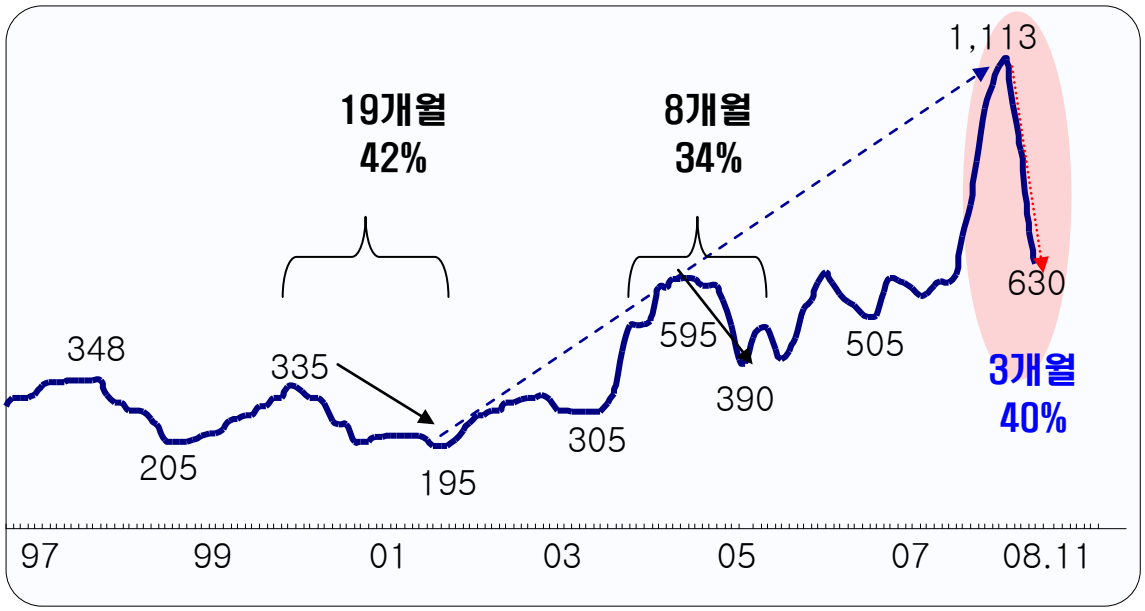
❑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부진 영향으로 철강경기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양상**

○ 하반기 들어 세계 철강수요가 감소세로 반전한 가운데, 특히 중국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16.5% 증가에서 7월에 동 4.9%로 급락한 이후 8월부터 감소세로 반전, 10월 현재 마이너스 14.3%로 급속히 침체

❑ **이에 따라 국제 열연가격은 금년 8월 대비 40%나 급락하였으며, 특히 중국 내수가격은 55%나 급락**

○ 최근 가격 급락세는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의 침체기와 비교 하더라도 속도와 폭 면에서 유례없는 수준

<그림 1> 국제열연수출가격 **($/톤)**



❑ **향후 세계 철강수요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약세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1%대의 저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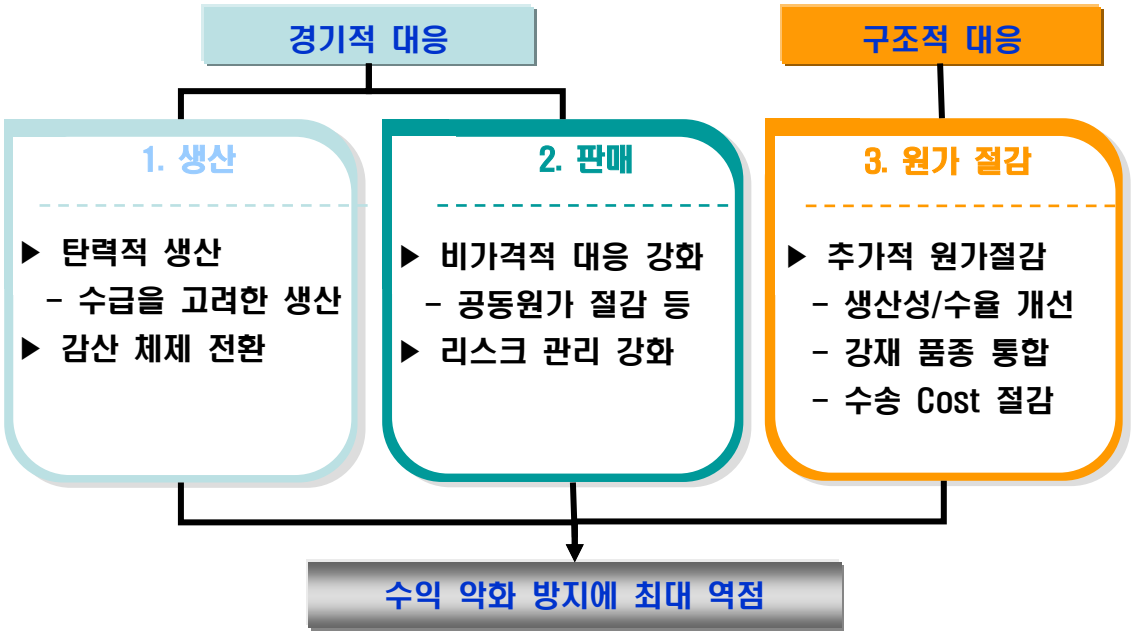
○ 선진국 철강수요는 미국, EU, 일본 모두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도, 러시아 등 BRICs 국가들과 중동 등 기타 신흥국들도 선진국과의 경기침체 동조화로 철강수요 증가세가 대폭 둔화될 전망

Ⅲ. 불황기의 기업대책 동향

❑ 주요 철강사는 최근의 유례없는 불황에 대응하여, 수익 악화 방지에 최대 역점을 두고, 신속히 감산을 단행하는 등 경기적 대응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

<그림 2> 주요 철강사, 불황기 대책



1. 생산 대응: 신속한 감산체제로의 전환

❑ 유럽: Arcelor-Mittal, CORUS 등 대형 철강사들이 감산을 주도

○ A-Mittal은 금년 10월에, 4분기 중 CIS 지역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15%의 감산계획을 발표하였으나, 11월 들어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면서 감산 폭도 25%~35%로 확대하여 4분기 중 900만 톤 삭감 계획

- 특히 동사의 주요 수출기지인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공장에서는 감산 폭을 무려 50%까지 확대할 계획
- Arcelor Spain도 조강류를 중심으로 감산 폭을 30~35%로 확대

○ 영국 CORUS도 당초 4/4분기 20%(100만 톤) 감산을 계획했으나, 최근 추가적인 시황 악화로 감산기간도 내년 1/4분기로 연장하는 한편, 감산 폭도 30%로 확대(300만 톤)

❑ 중국: 4대 Mill을 중심으로 감산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소형 Mill도 적극 동참하여 전체적으로 4분기 2,000만 톤 이상 감산

○ 보강 등 2,000만 톤 급 이상의 대형 Mill들과 북부지역의 4대 Mill인 수강, 안양, 산동, 허베이 등은 평균 20%를 감산할 계획

<표 2> 중국 4대 Mill의 감산 계획

	감산율	2007 년 생산량	분기감산	연율환산
보강	20%	28.6	1.43	5.7
사강	20%	22.9	1.14	4.6
당산	20%	22.8	1.14	4.6
무강	20%	20.2	1.02	4.0

○ 기타 중소형 Mill인 제남강철, 래무강철, 사강, 마안산 등 중형 Mill도 감산에 적극 동참하면서 금년 4/4분기 감산량은 2,200만 톤 예상

❑ 일본: 고로사를 중심으로 세계적 감산대열에 동참

○ 일본 고로 5사는 금년도 상반기(4월~9월)까지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10월 이후 신일철을 필두로 감산 방침 확정

- 이는 9월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가 아시아 각국의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면서 일본 철강 수요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
- 일본 자동차 생산은 당초 2008년에 1,180만~1,2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판매부진 심화로 2007년 수준(1,179만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산업기계와 전기기계 분야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

<표 3> 일본 고로 5사의 감산 계획 ('08.10~'09.3)

	감산량 (상기대비)	2008년 전망	상/하기 전망	당초 전망	2007년 실적
신일철	- 100	3,200	1,657/1,540	3,300	3,311
JFE	- 50	3,050	1,549/1,500	3,080	3,052
주우금속	- 10	1,400	704/695	1,400	1,362
신호제강	- 20	816	418/398	840	807
일신제강	- 14	394	204/190	412	412
합계	-194	8,860	4,532/4,323	9,032	8,944

❑ 미주: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 주요 철강사들이 신속하게 감산으로 대응

○ A-Mittal은 9월말 캠벌라 제철소 고로 1기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10월 초에는 클리브랜드 제철소의 고로 보수를 앞당겨 실시키로 결정

○ US Steel과 Nucor 등 미국 대형 철강사들도 4분기 생산량을 대폭 줄일 방침이며, Severstal Wheeling도 수요업체에 감산을 통보

- 이에 따라 미국 철강설비 가동률은 8월 91%에서 10월 현재 80% 아래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

2. 판매 대응 등: 리스크 관리 및 비가격적 대응 강화

❑ 가격결정체제의 변경을 시도하는 한편, 주요 시장 별로 리스크 관리 강화

○ 고베제강은 자동차용 특수강을 대상으로 하여 3개월~6개월 단위로 원료가격의 변동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CORUS도 에너지 서차지(Energy Surcharge)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과 EU 철강사를 중심으로 서차지 제도의 도입을 확대

○ 이와 함께 일본 철강사를 중심으로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아시아 철강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등의 비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도 적극 모색

○ 스미토모금속은 금년 하반기 들어, 도요타자동차에 원가 합리화를 위한 Value Innovation 아이디어 80건과 차체 경량화와 관련한 Mass Innovation 아이디어 50건을 제안

- 주요 테마는 강종 삭감, 사이즈 집약, 수율 향상 등 6개월~1년 사이의 단기간 내 구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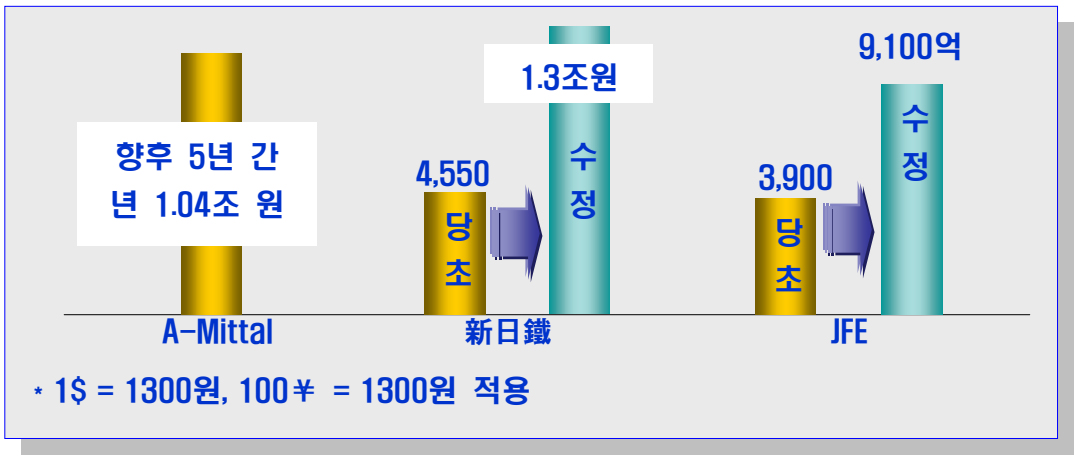
○ 개별 기업 차원의 협력을 넘어서 일본철강연맹과 일본자동차공업협회 공동의 원가절감 협력도 본격화해 나갈 방침

3. 원가 절감 등 구조적 대응

❑ 원가 상승분을 강재가격에 전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원가절감 활동 강화

○ A-Mittal을 비롯하여 신일철과 JFE Steel도 기존 원가절감 목표를 넘어서 추가적인 원가절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그림 3> 주요 대형 고로사 원가절감 목표(2008회계연도)



○ 특히 A-Mittal은 향후 5년간(2009~2013) 40억 달러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개선, 에너지 소비량 삭감, 원료 코스트 삭감, 수율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신일철과 JFE Steel도 원가절감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30만 톤 급의 대형 철광석 운반선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수송코스트도 계속 삭감해 나갈 방침

○ 이 밖에도 강재생산 품종 삭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저가의 열질원료 이용기술 강화, 에너지 절감활동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원가를 절감해 나갈 계획

❑ **중장기적으로도 원료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광산투자 확대 추진**

○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중심에서 광산회사 인수로 투자범위 확대 추진

○ 개별 기업 차원의 개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Tata와 Sail, 일본고로사연합 등 철강회사 공동개발도 적극 추진

Ⅳ. 결론

❑ **결국 불황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기업 명운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큼**

○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이야 말로 기업 간 실력 차이가 두드러질 전망이며, 향후 세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불황기에 체질을 개선하면서 체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업체는 불황기 이후에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주도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은 다른 철강사의 사냥감으로 전락하거나 철강업계에서 퇴출이 불가피

박현성 (e-mail: hspark@posri.re.kr)
☞ 이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